국립중앙박물관 불상전시실 새 단장

1월 22일부터 관람객 찾아

감산사 미륵보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이 불상전시실을 새롭게 단장 1월 22일부터 관람객을 찾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10월 반가사유상실, 신라 금관실 개선에 이어 불교조각실의 대형 불상 전시 공간을 전면적으로 리노베이션해 관람객들이 유물 감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로써 관람객들은 불교조각 대표 걸작인 감산사 미륵보살과 아미타불상,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리 철불 등 대형 전시품을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신소연 씨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유물의 관람을 방해하는 역광 효과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시실 전체에 암막스크린과 금속패널을 둘러 배경벽을 설치했고, 자연광을 차단하는 대신 간접조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시실 실내의 바닥과 벽, 천정을 단일한 톤으로 전시실을 찾은 관람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불상에 모아질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LED조명을 입체적으로 배치했다.

이번 불교조각실 개선을 끝으로 1년여 동안 (사)국립중앙박물관회 후원으로 진행된 대표 전시실 개선사업은 마무리됐다.

정혜숙 기자

비움과 채움 역설적 조화 보여줘

아니쉬 카푸어 개인전

아니쉬 카푸어 개인전이 1월 27일까지 삼성미술관 리움 기획전시장 및 야외정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초기작인 피크먼트(Pigment) 작품부터 카푸어 작업의 핵심인 보이드(Void) 시리즈, 오토제너레이션(Auto-generation) 시리즈, 최근작인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 등 핵심적이고 중요한 작품 18점을 선보인다.

아니쉬 카푸어는 인도 봄베이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미술 교육을 받았다. 작가는 1970년대 후반부터 동서양 사상과 문화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예술 개념과 정서를 바탕으로 아름답고 명상적인 작업을 선보여 왔다.

작가는 존재와 부재, 비움을 통한 채움 등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들이 서로 수렴하고 소통하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삼성미술관 리움의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난도의 대규모 작품들이 설치돼 눈길을 끈다. 특히 바닥을 실제로 뚫는 보이드 시리즈 중 중요작 중 하나인 '땅(The Earth)'(1991)이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시된다. (02)2014-6900

정혜숙 기자

탄허 대종사 100주년 기념 달력 발간

한암 · 탄허 스님 선묵 유품과 행장 담아

탄허 대종사 100주년 기념 달력 표지

탄허대종사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탄허 스님과 한암 스님의 서예 유품을 실은 달력을 내놓았다. 기념사업회가 은사 스님의 유적을 정리해 달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달력 첫 장에는 한암 · 탄허 스님의 행장과 사진을 넣었다. '부엌에다 불 붙이다 홀연히 눈이 밝았네/ 이로부터 옛길 따라 청정했네…'로 시작하는 한암 스님의 오도송도 만날 수 있다.

이후 1월부터는 탄허 스님의 글씨 6점 한암 스님의 글씨 6점 등을 각각 번갈아 담았다. 구절구절마다 중생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전해주는 글귀는 감동을 준다. 3월 달력에는 한암 스님이 홍천의 한서운 보살에게 보낸 편지가 실렸다. '화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화두'라는 내용의 편지다.

4월 달력에는 탄허 스님의 수류경귀해(水流景歸海) 월낙불리천(月落不離天)도 글씨가 실렸다. 정혜숙 기자

재능나눔 사랑방 오공카페 '화제'

단소 수업 등 200여 문화 프로그램 진행

불자 청년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는 오공카페의 재능나눔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단소 수업 현장.

국립국악원 단원 공담연 씨는 수요일 저녁이면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오공카페로 향한다.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오늘 수업은 '천년만세 中 계면가락 도드리'. 수강생들은 지난 1단계 수업을 통해 동요 가락을 익힌 후 중급 강연에 접어들면서 국악음악으로 한 단계 수준을 높였다. 단소수업 강사인 공담연 씨는 전문 국악인이지만 오공카페 강연에서는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 수강생들 역시 음료값 5천원 정도만 내고 저렴하게 수업을 듣고 있다. 이 모두가 오공카페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능나눔 프로그램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청년자립문화 프로젝트를 꿈꾸며 불자 청년들이 주축이 돼 지난 4월 문을 연 오공카페는 본지(884호 4월 18일자 게재)에 처음 소개된 이후 각종 매체에 소개되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재능과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대안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오공카페의 문화 프로그램은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공카페에서는 단소수업, 스윙 댄스, 중국어 교실, 글쓰기 수업, 토속민요특강, 양모솜 공예품 만들기, 사진강좌, 영어강좌 등 다양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독서모임, 공감대화법 워크숍, 협동조합 모임, 심야식당, 프리마켓 등도 활발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오공카페는 지난 10개월 동안 2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여기에 1천 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재능과 물질을 함께 나누며 대안문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오공카페의 기획취지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사고 있는 것이다. 오공카페 기획자이자 매니저인 조정훈 씨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능나눔 프로그램 역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사람은 누구나 재능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하나씩 내어 놓으면 비싼 돈을 들여서 굳이 학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각자의 재능 보시를 통해 더 풍성한 삶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기획한 취지"라고 설명한다.

무료 강좌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대충 가르치고 배우지는 않는다. 모든 강사들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며 보람을 얻는다.

불자 청년 주축으로 운영
재능 주고 받는 매개체 역할
동체대비 사상 바탕으로
청년 자립문화 확산 '목표'

단소 강사 국악인 공담연 씨는 "많은 국악기 중에서 단소를 택한 것은 가장 대중적이고 쉽기 때문이다. 다행히 수강생들도 흥미를 가지고 잘 따라오고 있다. 그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 내 목표는 여기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전문 강사로 성장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만드는 거다. 또한 전통음악 전공자로서 이런 계기를 통해 전통음악을 좀더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프리마켓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중고품 혹은 수제품들을 들고 나와 장을 펼치는 프리마켓은 지난 연말 처음 문을 열었다. 첫 마켓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1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프리마켓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매달 개최를 결정했다. 심야식당 역시 오공카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심야식당은 주제가 있는 식사 프로그램이다. 카페 회원 중 한 명이 주제 선정과 식사 메뉴를 정한 다음 참여자를 모집해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는 연애에서부터 대한민국 정치까지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오가며 메뉴 역시 스파게티에서부터 덮밥까지 주최자가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메뉴를 통해 대중들을 모으고 있다.

이 프로그램 역시 평소 혼자서 밥을 먹는 싱글족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여진 씨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눈다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외로 더 큰 위안과 즐거움을 얻었다. 서로 공통 관심사를 얘기 나누다 보니 금방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을 느꼈다.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많아지는 요즘 이런 공간을 통해 친구도 사귀고 밥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2012년 재능나눔 등을 통해 운영의 안정화를 꾀한 오공카페는 2013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공동주거 확대 등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좀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정훈 씨는 "고물가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젊은이들은 엄청난 노동을 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 가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직장을 열심히 다녀도 월세 내고 생활비로 쓰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서울에서 집한 채 사기 힘들지 않은가? 오공카페는 이제 청년들의 자립구조를 확대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창구 역할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눔을 통해 공생의 장을 펼쳐나가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자 하는 곳이 바로 오공카페"라고 설명한다.

앞으로 오공카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2호점 개설을 통해 나눔 문화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02)598-8804 정혜숙 기자

신의 멜로디로 마음의 '힐링'

나왕케촉 힐링뮤직 앨범 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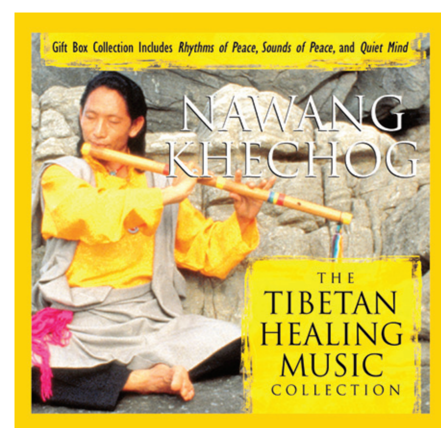
"산양들이 풀을 뜯다가 멈춰 서서 음악 소리를 듣기 위해 고개를 돌린다. 그것은 마치 신의 소리 같은 멜로디가 산양들에게 경이로움으로 가득하게 만들었고 춤추고 싶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비폭력 저항운동가이자 가수인 조안 바에즈는 나왕케촉의 명상 음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왕 케촉은 음악스승도 없고 작곡법을 공부한 일도 없이 혼자서 독학을 이룬 세계적인 명상음악가다. 살아 숨 쉬는 나왕의 힐링 명상곡은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린 듯, 우리들 마음을 고요와 평화의 세계로 데려다 준다.

나왕 케촉의 티베트 힐링뮤직 컬렉션 앨범이 한국에서 발매됐다. 이번 앨범은 티베트 대나무 피리, 둥첸, 디저리두, 오카리나, 띨부 등 다양한 전통악기 연주로 구성됐다.

3장으로 구성된 앨범은 △CD1 'Quiet Mind'은 '티베트인의 삶과 영성이 숨쉬는 마음고요 명상곡 △CD2 Rhythms of Peace-대나무 피리 숨결에 실려오는 평화의 리듬 명상곡 △CD3 'Sounds of Peace' 영혼의 울림으로 전해오는 평화의 소리 명상곡'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나왕케촉의 힐링뮤직 앨범이 한국에서 발매됐다.

정혜숙 기자

국립대구박물관 문화해설사 과정

국립대구박물관은 어린이 · 청소년으로 구성된 전통문화 해설사가 들려주는 박물관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 함께하기를 희망하는 어린이, 청소년은 국립대구박물관 전시실 입구 로비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회당 최대 3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 6회에 걸쳐 운영되며 수업은 국립대구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갖는다. (053)760-8546

정혜숙 기자

(주)예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가공 후 부산물로 나오는 찌꺼기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 유통되는 정품약재를 사용하여 일일이 선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므로 항상 깨끗하고 맑은 향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의 마음을 오래토록 기억할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구매 시 구매 수량별 추가로 드리는 덤 증정행사
(선물용으로 바로 쓰실 수 있게 쇼핑백포장까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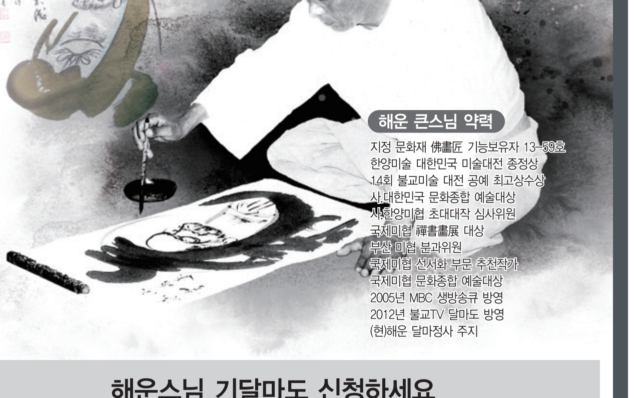
• 용 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실내 공간 비치용
• 규 격 : 복주머니 12*19cm (펼쳤을 때)
• 내용량 : 100g

제조원 : 수풀림 주문전화 :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해운스님 2013년 영험한 소지용 氣달마도

영험(靈驗)한 소지용 기달마도를 직접 그려드립니다!

해운큰스님은 전국의 불자님에게 10만여장의 기달마도를 그려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기달마도는 결혼/건강/회사원/운전/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재수달마도는 자영업/주식/승진/사업/부동산을 하시는 분들께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달마도를 받으신 분들이 효험을 보자 많은 분들의 신청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달마도를 소지하시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보십시오. 달마도 보시가는 3만원이며 수익금 전액은 해운스님 달마복지관 건립불사에 사용되어 집니다.



해운스님 기달마도 신청하세요
☎(055)353-9925